

# 도내 직업계고 학생 55명 공무원·공기업 최종 합격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3명 · 전북도 지방공무원 22명 · 철도공사 5명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 55명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및 공기업에 최종 합격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3명, 전북도 지방공무원 22명,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1명, 서울특별시 및 충남도청 지방공무원 각 1명, 남원시청 3명, 김제시청 1명 등 총 42명이다.

학교별로는 강호항공고 4명, 전주상업정보고 4명, 한국한방고 3명, 군산여

자상업고 2명 등이다.

전북도교육청 건축직에도 1명이 합격했다.

이어, 공기업에는 총 13명이 합격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 5명, 전북신용보증재단 5명, 한국수력 원자력 2명, KOTIT(코티티) 시험연구원 1명 등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단계별 직무 프로그램인 꿈키움 성장지원사업을 운영하고 더

불어, 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취업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특강도 제공해 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주시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올해는 신산업·신기술 테마형 특성화고, 지역별 특화형 미래산업 주도형 특성화고 등을 통해 특화된 취업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GTEP사업단 학생들이 독일 무역 박람회에 참가해 바이어와 상담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은 계속된다’

전북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지원 18년 연속 선정  
2026년까지 3년 동안 GTEP 사업단 운영 보장  
중기 해외바이어 발굴·전시회 참여 기업 수출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역특화청년무역지원사업(이하 GTEP사업)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9일 전북대 GTEP사업단(단장 김민호)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재학생들을 미래 무역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산·관·학 융합형 무역실무와 현장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국책사업단으로 전국 20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GTEP사업단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사업단 운영을 보장받게 되고, 학생들이 무역 전문가로 커나가고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앞으로 GTEP 사업단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길 개척을

위한 해외 바이어 발굴과 해외 전시회 및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을 통한 바이어 상담, 통·번역과 무역계약 체결 등 수출 제반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김민호 단장(무역학과 교수)은 "전북대 GTEP 사업단의 18년 연속 사업 선정은 대학 본부와 전북도,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지도교수들과 학생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국 대학 중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만큼 학생들을 전문적인 수출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26일까지 올 상반기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전북도교육청은 2024년 상반기 현업업무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10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시설관리, 운전, 통학버스안전지도사, 미화원, 경비원 등 현업업무종사자 1,6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는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사고 사례, 위험예지훈련(TBM)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개인 건강관리에 관한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자 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기관 내 현업업무종사자의 업무 내용과 작업환경 등 현장의 근로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북교육청 안전·보건관리자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기관 현장 맞춤형으로 구성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현업업무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를 깊게 관리자와 근로자가 더불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업업무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교 성취평가 핵심 및 선도교원 연수.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 전주대, 고교 성취평가 핵심교원 선도교원 연수 사업기관에 선정

전국 고교 교사 5차 1700여명 내달 7일까지 연수 진행

전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연수원이 수업 지원을 위한 고교 성취평가 핵심 및 선도교원 연수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고교 성취평가 핵심교원 500명, 선도교원 1,200명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선발된 교사들로, 원격연수와 대면연수 등 40시간의 직무연수를 통해 2022교육과정에서 정해진 성취평가 전문성 향상 및 지도자를 위한 교육이다.

핵심교원 연수는 5개 교과(국어, 과학, 사회, 수학, 영어, 수학) 각 100명씩으로 원격연수(콘텐츠 수강)와 대면(집합) 연수로 이뤄진다. 또 선도교원 연수는 고등학교 평가담당교사를 주

대상자로 원격연수(콘텐츠 수강) 후에 실시간 원격연수(쌍방향 화상)와 대면(집합) 연수로 진행된다.

특히, 2014년 1월 8일부터 진행되는 대면 집합 연수는 2개 유형을 5기로 나눠 2차 3일 일정으로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직접적인 교류와 토론 등을 통해 더욱 풍부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재복 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참여 교사들이 고교 성취평가에 대한 핵심 지식을 습득하고, 선도적인 교육 방법을 배우며 교육 현장에서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2024학년도 등록금 동결... 13년 연속

### 대학의 사회적 책무 일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2024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13년 연속이다.

9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4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등록금 동결하기로 했다.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이 인하 또는 동결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이다.

등록금은 학기당 인문사회계열 302만원, 공학예능계열 394만5,000원으로 2015학년도에 확정된 금액이다.



전주대학교가 2024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주대학교 전경.

전주대 과이구 기획처장은 "대학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등록금 동결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다양한 외부 국고 사업 수주 및 효율적인 재정분배를 통해 내실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